

人
스토리
일곱 번째
양선자

앞섬 소녀의 사계절

이야기·그리기: 양선자 듣고 쓰기: 조수빈·안가영

“

넓고 깊은 바다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
사연들을 다 품어줄 것 같아요.
한결같이 철썩이는 파도 소리는
소녀의 고단했던 삶을 위로해주는
기도 소리 같아요.

”



사회보장특례지원구역사업
천권도서관인스토리

보고 싶어요,
엄마





